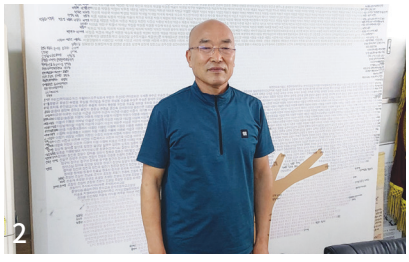
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5
오한흥 옥천신문 대표 인터뷰

8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21
충북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최병주 이장님 인터뷰

12 대청호와 함께하는 양서·파충류 2

18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7

24 환경정책포럼

28 대청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소개 및 활동보고

32 사업보고 - 서화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보고
- 미래세대 물교육 공동사업
-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보고
- 옥천 군서면 증산리, 하동리 도랑살리기 사업보고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30

발행일 2021. 7. 30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작은 도랑과 시냇물이 모여 소하천, 지류하천이 되고 금강본류가 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뜨거운 여름날임에도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에서 주민들이 도랑살리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마을환경이 깨끗해지고, 작은 도랑부터 금강과 대청호까지 더욱 맑아지길 기원합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간사

옥천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옥천신문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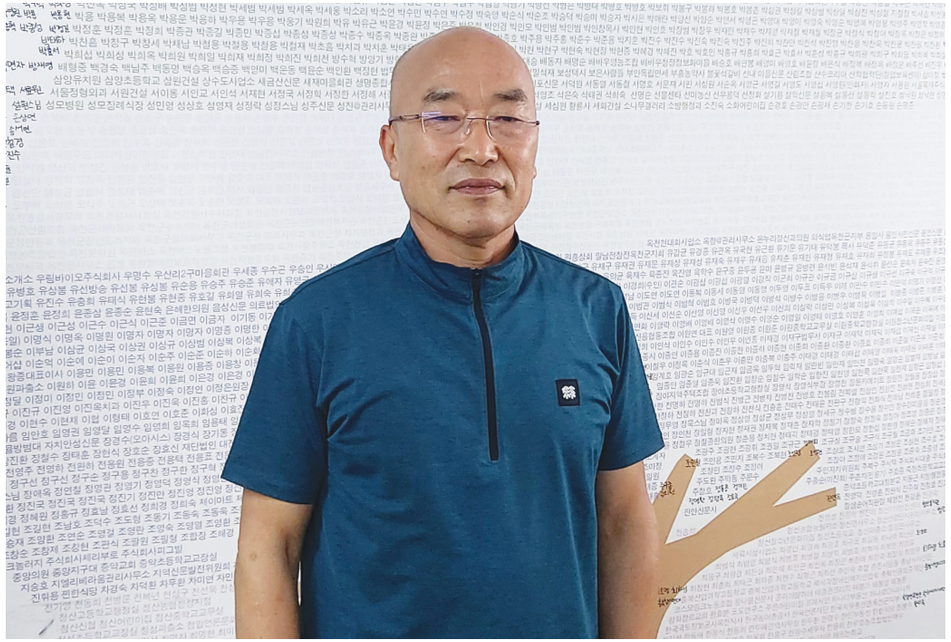
오한흥 옥천신문 대표 인터뷰

오한흥 대표 약력

· 옥천신문 대표(현)
· 여의도 통신 대표(전)
·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이장(전)
·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부이사장(전)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옥천을 대표하는 지역 신문인 옥천신문 대표인 오한흥(63) 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초에 옥천신문 사무실에서 오한흥 대표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터마을 사랑, 시골 사랑

오한흥 대표의 고향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이다. 읍에서 태어나 도시문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터마을의 매력에 빠져 안터마을로 이사해 30년 간 농촌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옥천읍에서 태어나서 읍 생활을 했었죠. 읍 생활은 아무래도 면 보다는 상업문화에 가까웠죠. 저는 이러한 제도권 문화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죠.

저의 학창시절은 정말 말썽꾸러기였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타지인 대전으로 가서 서대전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었지만 다시 고향인 옥천으로 돌아오기도 하였고, 청년 때는 재수를 한다고 서울로 상경하기도 했었죠.

저는 제도권 교육에 굉장한 싫증은 느끼기도 했고, 세속적인 삶이 싫어 25살에 출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기자들과 함께 안터마을로 취재를 간 적이 있었지요. 안터마을이 과거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 간에 서로 접경지 지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성터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그 때 제 눈에 안터마을이 갑자기 쏙 마음에 들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남자들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시골에서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골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확 밀려들어왔었죠. 그래서 안터마을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옥천 읍에서 살았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을 많이 느꼈어요. 시골문화는 환경적으로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관심도 가져다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풀 뽑는 생활도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제도권 문화에 살면서 삶에 싫증이 났었고 말썽도 부렸었지만 안터마을에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지면과 여론광장으로… 지역언론 옥천신문

옥천신문은 1989년 9월 30일 날 창립되었다. 오한흥 대표는 1958년 생으로 대략 30살 때부터 옥천신문에서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오한흥 대표는 과거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서 군부정권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었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제도권 교육에 실패를 한 인물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 기억나네요. 담임선생님이 장래희망을 적어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의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그대로 저의 아버지에게 제 장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었죠. 당시에는 못 배우던 시절이라 배움의 한을 느껴서인지 아버지는 저에게 판사나 국회의원의 길을 걸으라 하셨죠. 저는 사실 40대까지도 그것이 제 꿈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시골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내 꿈을 돌아볼 수 있었죠. 시골에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면서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제 꿈을 찾았고, 그렇게 시골생활 하면서 소탈하게 사는 것이 결국 저의 길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사실 그 때 당시에는 기자라는 직업의 위세가 대단할 때였어요. 신문사가 크거나 작든 간에 일단 기자라고 하면 그 위세가 대단했었죠. 솔직히 당시에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크게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한겨레신문사를 만나게 되었고 기자의 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충남대학교 교수 등 언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한국 언론을 진단하면서 전국을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타 지역들과 달리 옥천 지역은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유일하게 앞서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옥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좀 더 깊어졌죠. 옥천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어 본격적으로 옥천신문을 창간하자고 생각했죠.

옥천신문을 창간하기 전에 한겨레신문 옥천지부에서 일했었죠. 한겨레신문이 그 당시에는 노동자나 농민을 대표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겨레신문에서도 옥천지역의 기사는 버스가 뒤집어지는 사건 사고가 나야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옥천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겨레신문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중앙 일간지다 보니 우리 옥천을 담아내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한겨레가 국민주 방식으로 운영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영감을 받아 군민주방식으로 했습니다.

옥천신문은 옥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치원리죠. 옥천신문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신문이라는 것이지요.

옥천신문이 운영하는 옥천신문 홈페이지 여론광장 게시판도 꽤 활성화되었어요. 이처럼 활성화된 사례는 굉장히 드물어요. 꽤 오래되었고, 조회 수도 엄청나요. 이것이 또 하나의 언론기능을 해요. 그렇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이곳을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높으니까요.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SNS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죠. 그렇기에 주민은 물론 행정 쪽 등 다양한 사람들이 대청호에 관심이 많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오한흥 대표가 처음 옥천신문을 창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무모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한흥 대표는 끝까지 신념을 밀어붙였다. 지금 와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다. 즉, 초창기에 모두들 안 된다고 했기에 그만큼 경쟁자가 없었기에 더욱 잘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무엇보다 오한흥 대표는 옥천신문이 잘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민중 때문이었고, 옥천주민들 때문이었고, 독자들이 읽어주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한흥 대표의 대화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의 겸손함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전한 삶과 언론에 대한 철학

“제 나이가 65세인데, 650년 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6.25 끝나고 정말 최빈국 시기에 태어났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모두 겪으면서 살아온 제 인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더욱 행복합니다.

저는 특히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괴물을 만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볼 수 있었죠. 지금 언론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없애야 된다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하죠. 저도 물론 조선일보는 친일을 넘어 반민족 범죄 집단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수위 높게 비판하고 심지어 욕들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세계가 있고, 상대의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이든 간에 내 세계가 있으니 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내 판단도 이러니 당신도 여기에 따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민주주의 이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언론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터마을에 내 작은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이름이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는 이 언론운동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면 불씨 지킴이로서 생각하고 하거든요. 한 번에 확 휘몰아치는 불길이 지나가서도 그 뒤에서 불씨를 계속 지키고 사그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남들이 보면 불씨를 지킨다는 것이 폼이 안날 수도 있지만 계속 끝까지 불씨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으로 언론개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조선일보가 반민족 기사를 쓰는 건 맞지만 9.2%밖에 안 썼고, 나머지 90%는 민족적 기사를 썼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했어요.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고 해도 60평생을 살면서 10%를 범죄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했죠.

조선일보가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끝까지 분석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수준에서 답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죄질이 반민족이면 개인 간이든 단체이든 그건 그 자체로 끝장 난거에요. 지금 이제 유튜브나 SNS가 활성화 되어서 조선일보를 공개 비판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이 쌓이고 쌓여 조선일보는 점점 쇠퇴하겠죠. 저는 지금 우리 후세들이 그 일을 해낼 거라고 봐요. 미래전망이 매우 밝을 것이라 기대해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는 대선 때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수준까지 성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한흥 대표와 인터뷰하면서 미래 세대에 거는 희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양리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오한흥 대표는 2012년도에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친바 있다. 지양리는 안터마을 바로 옆 마을로 당시 옥천군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골프채로 고추대를 세우는 등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여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사실 전 처음에는 반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모 입장이었어요. 정확히는 판단유보 상태였습니다.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사는 정직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만약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마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옥천군과 지역사회에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 등을 공개하고 그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또한 솔직하게 단점 및 문제점들도 밝히고 어떻게 미흡한 점을 채워나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러한 소신이 있었기에 마을 주민들을 모아 저의 의견을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학습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죠.

저는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세모입장이었어요.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니까요.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지 찬성 혹은 반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내용이나 장단점들을 알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는데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그 자체로 제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지요. 골프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입니다. 만일 골프장이 건설되고 그 방류수가 상수원인 대청호로 유입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당시에 군청 앞에서 지양리 이장과 마을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 반대운동을 했었죠. 주민들이 처음에 갈팡질팡 결정을 하지 못할 때 반대쪽으로 잘 이끌었던 셈이었죠."

대청호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오한흥 대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한 애정도 많아보였다. 그리고 뼈와 살이 되는 말들도 아끼지 않았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오래되었잖아요. 제가 초창기 멤버에요.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위원회도 하고 해서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성찰하는 시간도 갖아야 됩니다. 이건 옥천신문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돌이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을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 초기 목표가 무엇이고 초창기 선배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등 초심을 돌이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운동도 독립운동과 비슷하다고 봐요. 시민운동을 하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NGO 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옥천에 흐르는 강도 대청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청호라는 말 자체가 대전과 청주만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이름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청호 이 이름을 유지하면 계속 한계에 부딪힌다고 봐요. 그래서 금강호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강호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명칭 고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서화천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댐 관리 정책이나 대청호 보전과 관련 된 것들을 명칭부터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오한흥 대표는 현재 대청댐물문화관이 대전댐수문 근처에 있는데 옥천에도 물문화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이어나갔다.

"옥천이 대청호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옥천 석탄리 같은 곳에 물문화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과 옥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청호 수질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노력으로 대청호의 환경뿐만 아니라 대청호를 대하는 시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 하는 동안 솔직한 말들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한흥 대표를 만나서 뜻 깊은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옥천신문이 앞으로도 계속 옥천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신문사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한 대청호와 관련된 소식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어르신들 모두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마을 지키려고요.”

충북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최병주 이장님 인터뷰

대청호 보전운동본부 이강혁 국장의 원고 요청이 자세하고 살갑다. 설렘을 더 설레게 하는 마력이 깊다. 이번에는 또 어떤 결 고운 이장님을 만날까. 산빛은 짙은 초록, 뭉게구름은 곱다. 땡볕에 들판, 능소화의 기다림이 거룩하게 느껴진다.

오후 2시, 잘 정돈된 마을 초입, 분저리 마을 회관에 도착했다. 충북 보은군 회남면의 남쪽, 대청호가 있는 농촌 마을로 속리산 자락과 대청호가 접하고 있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생태 힐링 창조적 마을이다.한눈에 봐도 선한 기운이 넘쳐나는 최병주 이장님(62)이 다목적 회관으로 안내했다. 인터뷰 분위기를 잡고 첫 질문을 했다. 자기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아이구, 자기 소개라, 뭐 특별한 건 없구요. 저는 그냥 봉사활동을 좋아합니다. 34년 4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정년 퇴임 후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이제 5년을 넘기고 있는데, 아들 입장이 되어 모두 부모님 같은 분들을 모시며 그저 행복하게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군 생활 퇴임 전부터 시골에서 노후 생활을 꿈꿔 왔는데, 지인 소개로 분저리 마을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여동생과 함께 분저리에 있는 과수원 땅을 사서 집 두 채를 지었다. 최 이장은 감동에 감동을 거듭했다. 충청북도에서 오지 중에 오지 마을로 그 풍경이 마음에 쏙 들어온 데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청정 지역인지라 여생을 분저리에서 보내겠다고 각오했다. 분저리와 가까운 청주에는 부모님과 처가가 있어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됐다.

마을 자랑을 청했다.

“우리 마을은 기본적으로 청정 지역이지요.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의 인심이 너무 좋고요.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십니다. 대청호반을 끼고 있고 안동네가 훤히 다 보이고 탁 트여서 경치가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분저리는 충북 보은 8경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마을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봉이 있는데 독수리가 대청호 물을 먹는 모양이고 누군가는 악어처럼 생겼다고도 해요.”

최 이장이 분저리에 들어온 지 5년 되었는데, 4년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 군 생활 중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경험이 시골 생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다. 수몰 지구이다 보니 1년에 한 번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바꾸는 데 3년이 걸렸다. 마을 사업을 진행하며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깊은 정이 들었고, 마을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어 이장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금은 이장이 하는 일에 전격 지원을 한다. 그만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왔기에 가능한 믿음이다.

마을 사업 성공 사례가 있다. 따로 법인을 만들어 거대 수익 사업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팬션이 있어 약간의 수입을 얻고 있다. 과거에는 팬션이 낡고 손님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팬션을 정비하고 연세로 돌려서 마을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이 수익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드린다. 마을에 특출한 소득 사업은 없지만 마을 팬션 운영은 성공적으로 이어져 마을 운영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철저한 쓰레기 배출은 분저리 마을의 자랑이다. 일부 언론에 소개될 만큼 우수 사례로 정착되

었다. 대청호 관련 시민 단체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쓰레기 집하장과 분리 수거함을 마련하여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 이장은 더 많은 욕심을 낸다

"제가 이장하면서 분리 수거 설득하는 데만 3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마을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이나 비슷한 걱정 거리가 있을 텐데요. 아직도 홍보나 계몽이 덜 돼서 쓰레기를 매장하고 태우는 일들이 발생하곤 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민 교육이 절실한데요.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우리 마을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남면에 16개 부락 중 쓰레기 분리 배출 예산 지원이 2개 마을에만 국한돼 있거든요. 16개 마을에 다 지원하면 좋겠어요. 특히 쓰레기를 묻거나 태우기를 못하게 하려면 마을마다 특강이나 홍보 등 가능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마을 원주민들의 경우 평생토록 태우거나 묻어서 쓰레기를 처리해서 분리 배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설득, 홍보, 포스터, 교육 영상 등 다양한 자료와 사례 제시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단체의 도움을 원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 분저리 마을로 우뚝 서려는 최 이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분저리에는 41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다. 작년 기준 평균 연령은 66.5세로 최 이장은 젊은 그룹을 대표한다. 복숭아, 포도, 대추, 블루베리 등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12명 정도 되고, 조상들이 대대로 지어온 벼 농사와 기본 농산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분저리는 평야가 넓고 시설 공간도 좋다. 외지인들이 한 번 보고 가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살기 좋은 마을로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최 이장의 아쉬움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식수 문제다. 회남면 일대가 석회 석탄층이어서 식수로서 적절치 않아 공영 상수도 공급이 시급하다. 이 식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최 이장은 강조했다.

분저리에 자랑거리가 있다. 40여 년 동안 홀로 살아오신 92세 김연옥 시인이다. 7~8년 전에 효나눔 센터 복지관에서 문맹을 극복하고 실생활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시를 써서 유명해진 분이다. 전국에서 초대 받아 시를 나누고 시낭송도 하면서 감동을 선사하는 분저리 마을의 자랑이다. 최 이장은 김연옥 시인의 시에 감명을 받아 다목적 회관에 시를 걸어 놓고 감상하는 팬이기도 하다. 늦깎이로 한글을 깨우쳐 시심을 일군 김연옥 시인의 '독수리봉'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한다.

독수리 봉

- 김연옥(시인, 분저리 마을 주민, 92세)

절반은 청산
절반은 하늘
독수리봉 늙은 바위에 걸터 앉으니
세상 근심 다 사라지네

앞산의 푸르는 동산을 바라보노라면
나의 마음도 푸르러지네…….
나뭇가지 사이로 정답게 비치는
햇살 받아 누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네

무릉도원이 좋다한들
포근한 나의 고향만 하랴
팡개봉을 얼싸안고
굽이굽이 흐르는 푸르른 대청호는
우리 고향 분저리를 더더욱
풍요롭게 하는구나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맹순이와 맹꽁이

맹꽁이 공원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갑천, 오른쪽이 금강입니다

봄. 대둔산에서 발원한 갑천은 논산, 금산을 지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서 금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갑니다. 갑천의 가장 끝인 문평동 합류점에는 갑천과 금강에서 실려 온 아름다운 금빛 모래들이 모여 큰 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봄이 찾아오면 겨우내 잠자고 있던 씨앗과 뿌리들이 고개를 내밀어 봅니다.

봄이 오면 갈퀴나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노오란 애기똥풀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먼저 닭뿌리풀이 올라옵니다. 조금 있으면 고마리, 갈대, 억새들이 나옵니다. 이맘때쯤 저 넓은 대지의 가장자리에는 갈퀴나물이 번성하여 자줏빛 꽃 물결을 이룹니다. 갈퀴나물들이 군락을 이룬 저 멀리에 노오란 색의 꽃이 하늘 하늘 거립니다. 가까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애기똥풀입니다. 줄기를 살짝 꺾어 보니 애기똥처럼 노오란 물이 나옵니다. 대지는 한없이 넓고 평온해 보입니다. 군데 군데에 버드나무에서 연두색 이파리가 나옵니다. 봄바람에 하늘 하늘 흔들립니다.

이런 평화로운 갑천의 대지에 4대강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한창때인 2010년, 대전시민들과 함께 맹꽁이모니터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맹꽁이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2급야생동물'로 보호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맹꽁이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갑천의 종점인 문평동 합류점에서 대단위의 맹꽁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전

맹꽁이 실험을 한 장소입니다. 밤나무도 보입니다

광역시와 협의하여 이 넓은 7만평의 평화로운 대지를 맹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길도, 둘레길도 모두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금은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맹꽁이공원'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생동감을 느낍니다.

여름. 맹꽁이의 생태가 궁금해 집니다.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4월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와 달리 낮에는 항상 땅속에 들어가 살고, 밤이 되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맹꽁이의 뒷다리에는 땅을 잘 팔 수 있는 딱딱한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맹꽁이를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합니다. 맹꽁이들이 장마철이 되면 물이 고인 웅덩이로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맹꽁이 공원에는 중간 중간에 물둠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꽁이들은 집중적으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장마철에 물이 고인 곳을 좋아합니다. 7월의 억수 같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맹꽁이들은 물이 많이 모인 곳으로 모두 모여듭니다. 수컷들은 암컷을 찾기 위하여 목청껏 웁니다. 멀리서도 이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한 마리가 "맹", "꽁", "맹", "꽁"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맹"하니 옆에 있던 녀석이 "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꽁"하니 "맹"하고 답변을 합니다. 아하! 맹꽁이는 "맹"하는 녀석과 "꽁"하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꽁이들이 때로 모여 울기 시작 합니다. 전체의 맹꽁이들이 반은 "맹" 반은"꽁"을 힘차게 합창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야만 암컷에게 자신의 소리를 잘 전달하여 짝짓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다가 짝짓기에 성공한 쌍은 알을 낳습니다. 알을 자세히 보니 물위에 떠 있습니다. 물위에 떠 있어니 여름의 더운 햇살을 잘 받아 부화를 빨리 진행하여 올챙이가 되어 작은 맹꽁이가 됩니다. 맹꽁이는 가장 늦게 알을 낳지만 가장 빨리 알-올챙이-작은 맹꽁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맹꽁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청의 포획허가를 받아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맹꽁이 열마리를 채집하여 뒷다리에 발신기를 부착했습니다. 발신기는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 땅속으로 들어간 맹꽁이는 밤이 되면 돌아다닙니다. 해가 뜰 무렵 다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어디로 이동하는지 수신기를 이용하여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이동이 확인된 곳에는 깃발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실험을 하여 깃발의 위치를 연결하면 맹꽁이가 이동한 경로가 나옵니다. 어떤 맹꽁이는 강둑 근처로, 어떤 맹꽁이는 강가로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맹꽁이가 열심히 울고있습니다

맹꽁이를 추적하는 실험입니다

추적이 확인된 4번, 맹꽁사가 땅속에 있습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실험을 하던 옆에는 밤나무 숲이 있습니다. 밤이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밤을 따러 옵니다. 한 무리는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밤을 따고, 다른 무리는 끈을 나무에 묶어서 던지면서 땁니다. 다음날 온 사람들은 돌과 나뭇가지를 던지며 땁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원시인들도 수렵을 할 때, 돌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했는데 이런 유전자를 현대인들에게 전달했노라고…….

맹꽁이들은 겨울잠을 어디에서 잘까?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여름에 나온 녀석들 중에서 암컷 다섯 마리, 수컷 다섯 마리를 채집해 두었습니다. 암컷은 맹순일, 맹순이, 맹순삼, 맹순사, 맹순오로 이름을 짓고, 수컷은 맹꽁일, 맹꽁이, 맹꽁삼, 맹꽁사, 맹꽁오로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먹이를 열심히 주고 기른 후, 여름과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맹꽁이들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쥐구멍이나 썩은 나무 아래, 돌 틈 사이 아래의 자연적인 굴을 이용하여 겨울을 지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면지를 확인하는 가을 실험장소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겨울의 풍경입니다

겨울. 연두색과 초록색의 새싹이 고왔던 봄도, 푸르른 여름도, 황금색의 가을도 지나갔습니다. 갈퀴나물도 애기똥풀도 밤나무도 잎이 떨어지고 새하얀 눈이 왔습니다. 지난여름 힘차게 울던 맹꽁이들도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갑천과 금강은 말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맹꽁이는 땅이 오염되어도 물이 오염되어도 공기가 오염되어도 못사는 환경지표종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막은 효자 동물입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맹꽁이 공원에서 맹순이와 맹꽁이를 만나면 나를 반겨주겠지요?

※ 참고문헌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지성사 문광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풀 이야기』 지성사 유기억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미호동산성길, 신선봉길

생명, 다시 살아나다!

미호동 산성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여름의 한가운데가 되었다. 늦은 장마도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 되는 7월이라 눅눅한 습기가 마음까지 울적하게 한다.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맘 편히 걸어 본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지난 5월에는 대청호 걷기를 강촌에서부터 걸었다. 강촌은 삼정동의 한 마을의 이름이다. 녹음이 참 아름다웠고 걷는 길 내내 작은 야생화들로 발걸음을 즐겁게 하였던 기억이 있다. 오전 10시에 단출하게 출발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즐겁고 행복했다. 봄꽃과 우거지는 녹음의 숲 그리고 시원한 호수의 풍경이 하루를 행복하게 한다. 오늘의 걷기는 어디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인지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나눈다. 강촌에서 이어지는 비상여수로 쪽의 길은 그 사이 정비를 하였는지 잘 다듬어진 모습이다. 걷는 기분이 상쾌하다.

오늘의 코스는 강촌-이촌-청동기유적지-비상여수로-미호동산성-로하스가족공원-강촌(원점)으로 계획을 한다. 산성을 끼고 처음 걷는 길이라 기대가 크다. 청동기 유적지를 지난다. 넓은 광장처럼 만들어진 유적지가 사뭇 낯설다. 어떤 구조물 하나 없이 덩그러니 맨땅에 아무런 표식도 없고 길 입구에 작은 안내표지판 하나 있는 것이 다 였다. 내 생각에는 이곳을 발견하게 된 동기나 발굴된 유물들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듯하고 발굴기간과 유물들이 어디에 전시되었는지 안내를 해 주었더라면 더없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 한다. 호수 쪽에서 오르는 길에 낡아서 방치된 안내판이 있기는 하다. 그곳보다는 큰길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눈에 뜨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단 생각을 한다. 잠시 아스팔트길을 걷는다. 비상 여수로 가는 길이다. 여수로 댐 위를 걸으며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눈다. 야생동물을 위한 통로인데 어떤 것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걷다 보니 미호동산성 가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비상 여수로를 지나 미호동 산성 가는 길은 우거진 숲으로 걷기에 참 좋은 환경이다. 아쉽게도 대청정 가는 길에 조성되어진 자작나무 숲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의 자작나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무 곳에나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수종을 골라 심어야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 길의 끝자락즈음 정자 하나가 서 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이란다. 정자 이름은 대청정이다. 오며 가며 들러서 쉬어가기 참 좋은 곳이다. 호숫가에 자리 잡은 정자의 풍경이 고즈넉하니 좋다

대청정 모습

이제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을 한다. 미호동 산성 가는 길이다. 여기서 이상한점 하나를 발견했다. 이정표에는 '영지산'이라는 표시가 선명한데 누군가 아래쪽에다가 '지명산'이라고 표시해 놓았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관심있게 보고 확인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미호동산성 정상에도 같은 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 했다. 숲은 참 좋다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만발하여 반겨주고 그것을 보며 걷는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니 말이다. 오늘도 걷는 길에서 반겨준 꽃들은 고광나무꽃, 땅비싸리꽃, 수레국화, 찔레꽃, 아카시아 등이다. 모르고 지나친 꽃들도 많을 것이다. 숲속의 꽃들은 숲을 찾는 사람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꽃 같은 마음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걷다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로하스가족공원 캠핑장에 도착을 하였다. 이

신상동 오염방지시설 앞
쓰레기 더미

신상동 비점오염시설
파손된 시설

번 걷기는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스스로 힐링을 위한 걷기가 되었다. 많은 것을 생각 하지 않고 대청호 걷기에만 집중을 한 하루였다.

6월, 두 번째 걷기에 나선다. 신상교에서 시작을 하여 신상동 오염방지시설-신선봉-금성마을-모세길-오리골-신상교로 이어지는 제법 길고 먼 길이다. 신상교에서 반가운 만남으로 짧은 인사를 나누고 길을 재촉한다. 제법 날씨가 덥다. 6월이지만 날씨는 여름을 이기려 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후재앙을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예전 같지 않은 날씨가 이를 증명한다.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커다란 숙제를 받아들었다.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 그래서 변해가는 지구환경을 눈뜨고 무관심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프게 한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버려지는 쓰레기와 무수히 많은 탄소배출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병들고 있는 것이다. 무심하게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신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이중성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상동 오염방지시설의 주변 시설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한참 전에 왔을 때도 공사 중이더니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길을 돌려 신선봉으로 향한다. 무더위 속에서 산을 오르기란 쉽지 않다. 한바탕 땀을 흘리고서야 정상에 도착을 하였다. 멋지게 펼쳐진 조망이 힘들게 오른 흔적을 말끔히 지워 준다. 대청호는 이래서 좋다. 어딜 가나 멋진 풍경이 있고 맑은 호수가 반겨주고 푸른 숲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신선봉 정상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틈이 있다. 이 틈을 자기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런 그 작은 바위틈에 누군가가 글씨를 새겨 놓았다 어떤 소망을 담아 글씨를 새겼는지 정성이 느껴지는 글씨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정상에 머물다가 길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능선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한다. 금성마을 가는 길이다.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 몇 가구 되지 않는 금성마을이 숲속에 숨어 있다. 너무나 조용한 마을이라 조심스레 비켜 지나 모세 기적길로 들어선다. 모세기적길은 작은 둑을 쌓은 길인데 물이 깊어지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나타난다 하여 그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저 멀리로 신상동 마을 자연생태습지가 있다. 그 옆을 지나 오리골로 접어들고 강변 무수한 갈대밭을 지나 처음 출발했던 신상교에 도착을 한다.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진 날이다. 이렇게 걸으며 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속에 정겨움으로 알알이 남겨져 있다.

요즘엔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까지 많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구 지키기에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린하이커스'로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은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다. 중요한 것은 줍는 것만이 아닌 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밝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일 게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며 일일 배출되는 쓰레기 량도 엄청

금성마을 지나는 길에 오염수로 보이는 도랑

모세길을 향해 걷는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도시의 시민단체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주문한 것을 받아 오는 캠페인도 한다고 한다. 나도 대청호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먹은 물 대청호의 민낯을 알게 되고 부터는 부쩍 관심도가 커졌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얼마 전에 환경의 날을 맞았다. 그동안 활동을 하며 안타깝고 아쉬웠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었는데 이번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캠페인을 겸한 사진문학전을 열기로 기획하였다. 주제는 '생명, 다시 살아나다.' 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진을 각 팀별로 제출 받아서 스토리를 입혔다. 덩그러니 사진만 전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수로 살아나는 모습을 이야기로 꾸미고 순서에 맞게 사진을 배치하여 만들었다. 전시 장소는 대청호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 낭만길 중에 '명상공원길' 주차장으로 정하였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 전시 장소로는 제일인 듯싶었다. 환경의 날인 6월 5일 많은 해설사님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님들 모시고 간단한 오픈행사를 가졌다. 오며 가며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대청호 물의 중요성과 친환경생활지수를 알아보는 환경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어 전시 내내 즐거운 마음이었다. 전시는 2주간 이어졌고 해설사님들께서 돌아가며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해 주셨다.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먹는 물 대청호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지 않았을까 성급한 기대도 해 본다. 버려진 쓰레기를 사진으로 보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는지 알게 됨으로서 시민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먹는 물 대청호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한다면 이번 사진문학전은 성과가 크다 하겠다.

사진문학전 환경캠페인

사진문학전 전시

이번 사진문학전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 되어 하반기에 2차 사진문학전을 하기로 했다. 2차 전시회의 주제는 '걸으면 보이는 풍경'이다 대청호를 걷다 보면 눈에 뜨이는 풍경들이 참 많다. 버려진 오물과 쓰레기로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풍경도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날아와 조용하게 물위를 노니는 물새 떼들과 모래톱에 일렁이는 물결을 따라 자리 잡아가는 생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대청호를 걸으며 찾아볼 생각 이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자랑을 하고 나쁜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반성을 하게 하고져 한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부지런히 대청호를 돌아다녀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코로나가 언제 물러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 역시 자연환경의 경고라는 생각이기에 이겨 내야 할 것이다.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는 그것을 돌보는 마음은 늘 아름다워야 한다. 말로는 버리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자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이들이 있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 물을 생각 하고 기후 환경을 생각 한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자. 그런 진실한 마음 나눔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더 없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대청호를 찾는다.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때 부산했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말없이 걷다가 한적한 곳에 자리잡고 앉아 쉬기도 한다. 그리고 반짝이는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생각은 이미 물속에 던져버리고 호수 위에 머무는 머릿속은 백치가 된다. 그리고 서서히 채운다. 자연이 주는 생명의 숨길로 차곡차곡 채워 간다. 내가 대청호를 사랑하게 된 이유다.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네가 있어 마음이 행복할 뿐이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마주 잡은 손으로 따스한 정이 흐르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글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

대청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포럼 개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은 대청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포럼을 지난 7월 1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의 개회사,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최응기 옥천부군수의 인사로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충청권 4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댐 건설로 수몰되고,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였지만 담수 40여년이 지나면서 자연생태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여전하다.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사라져간 야생동식물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청호가 식수원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과 대청호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포럼이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금강유역환경청 연제화 상수원관리과장은 '금강 상류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설명하면서 그간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대청댐 홍수터와 연계한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지속해 상수원 지역의 수질 정화기능과 더불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한국수자원공사 어정희 부장은 '대청댐 홍수터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방향'을 통해 댐 저수구역, 상하류 하천, 산림, 주변 토지까지 아우르는 자연기반해법(NbS)의 물순환,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한 물순환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댐 홍수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훼손, 교란 및 경작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 원인제거와 친환경 복원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는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사무총장이 진행하였는데, '대청호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발제주제를 통해서 대청호 수변지역에 생태 테마마을,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을 추진해 홍수터 무투입 생태경관 작물재배와 양분순환 기법을 도입해서 주변 농경지에 생태농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어메니티도 증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상수원 지역의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해 실현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발제는 옥천 안터시골살이 박효서 대표의 ‘대청생물다양성공화국 프로젝트’였는데 참석이 어려워서 이건희 상임이사가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박효서 대표는 지표생물인 반딧불이, 나비, 쇠똥구리 등 환경지표종의 복원을 통해 대청호에 생명마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상수원 지역의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수질개선, 지역브랜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 정용문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환경차장, 오한흥 옥천신문 대표,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교종 옥천살림 상임이사,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육중천 대전일보 기자 등이 대청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관광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청댐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마지막 정리발언에서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대청호 환경정책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후 대청호 관련 정책포럼이 자주 진행되어서 민관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상임이사는 향후 대청호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민관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실현과정에서 대청호 지역주민과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글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

대청호의 수질 및 환경관리가 지역주민의 일자리로

대청댐 하천쓰레기 자율관리사업

4월 사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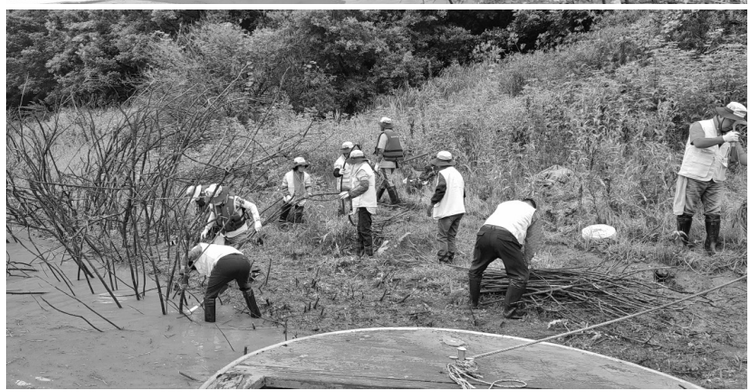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대청댐 수질 및 환경관리를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이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제기해왔다. 특히, 홍수기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는 대청호의 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여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옥천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청댐 하천쓰레기자율관리사업'이 올해 추진되었다. 지난 4월 14일에는 K-water 대청댐지사, 옥천군 환경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함께 '대청호 상류 하천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구축사업' 주민설명회가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에 발족한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은 옥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여 48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대청댐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옥천군내 대청댐 인근의 쓰레기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의 산하에 '대청호환경관리센터'를 부설로 설치하여 이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과 옥천군청 환경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등이 적극 참여하여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1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또한 매주 1회 작업반장 회의를 통해 지난 작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작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주 진행되는 작업반장 회의에서는 작업의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청호의 유역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6월 24일 처음 시작한 대청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7월 17일 4회차까지 80kg 마대 780개와 폐비닐, 건축폐기물, 초목류 등 14.6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사업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거사업을 펼쳤으며, 환경이 사회적 일자리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 참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2반

3반

4반

한편, 7월 22일 진행된 작업반장 회의에서는 무더운 날씨속에 사업 참가자들의 안전사고와 건강을 염려하여 3주간 수거 사업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참가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며, 8월 5일에는 사업 참가자 전체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은 “대청댐 인근의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더불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환경이 주민에게 수익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 관리적 측면에서는 유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작을 알렸다는 것이 중요한 전환이다.”라고 밝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사회적협동조합 금강과 협력하여 대청댐 하천쓰레기 자율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대청댐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홍수터 초목관리 및 인공습지 관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유역관리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비가림 재활용 분리수거대 활용교육 호응
민·관·학 운영위원회 “현장에 답이 있다”

“농약병이고 음료수병이고 한꺼번에 모아넣었던 우덜이 이제는 농약병과는 따로 담아 내다놓는답니다.”

월전리마을회관앞 비가림 재활용 분리수거장앞에만 모이면 70대 이상의 주민들은 서로 자랑하고 서로 챙겨주며 분리작업에 한창이다.

2018년 처음 시작한 서화천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활동의 일환으로 군서면 오동1리와 월전리마을에 비가림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꾸준한 활용교육과 실천활동을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인근마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작디작은 쓰레기분리수거장 시설 하나가 뭔 대수일까 싶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옥천군 주민들의 경우 매일 골목곳곳마다 들짐승이 파헤쳐놓은 쓰레기 잔해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 악취와 거리풍경을 늘 겪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비가림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고,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화학제품보다는 천연제품을 더 활용하는 생활문화를 꾸준히 지키는 주민들은 예전에 비해 마을환경이 달라졌다며 지속성을 기대한다. 그 활동을 함께 한 거버넌스팀들 역시 매우 고마운 일이다.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7개 실천마을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 현장이야기를 세세하게 듣고 있는 모니터링단과 환경리더 5명은 원팀으로 매주 수요일 이른8시부터 서화천 일대를 누비며 현장을 기록한다.

4년째 현장활동중인 그들에 따르면 2018년 첫해보다 서화천 본류구간과 마을도랑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지만 아직도 소소하게 고질적인 상습투기구간에 대해서만큼은 각 면단위, 군 환경과, 환경부 등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식을 도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세한 현장이야기를 담아 지난 6월30일 오후2시 대청호유역하천센터에서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올해 계획된 서화천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활동에 대하여 공유하면서 그동안 거버넌스의 활약과 주민들의 참여로 서화천 일대 환경이 매우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동안 거버넌스가 해왔던 것처럼 현장확인과 주민간담회를 병행하는 회의형식도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한 최충식 운영위원은 “소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연구형태에서 진행할때는 지역사람들을 모으고 지역환경리더를 양성하는 등 사람을 남기는 주요성과가 컸으나 올해에는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위주 활동에 치중하다보니 마을주민 활동을 지원하는데에만 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히며 소유역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었고, 매뉴얼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활동이 축소되기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실행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체험의 일상화~ 생태전환교육으로 가는 길

우리단체는 대전충청권 450만여명의 생명수로 자리잡은 대청호를 주제로 기획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과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대청호유역내 초중고 15개학교 총 70개학급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미래세대 물교육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환경교육을 지양하고 일상의 경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험과 경험위주의 물환경교실, 대청호생태놀이, 우리동네 생태하천지도만들기 등의 다양성을 확보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전외삼중학교의 경우 4월30일부터 1학년 6개학급이 총 10회에 걸쳐 반석천생태하천지도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학습에 참여했다. 학교 인근거리내 반석천 도보탐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약도, 하천유형, 오염원방지시설은 물론 생태채집 등 기록하며 마무리시간에 그 내용을 토대로 반석천 생태하천지도를 완성했다.

“직접 참여하면서 하천지도와 생태하천지도의 차이를 알게 됐다”는 송시은학생은 “하천내외부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작은 곤충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었구나” 밝은 웃음을 짓는다.

반석천 생태하천지도를 만들게 되기까지 종종걸음으로 이끌고 밀어준 이는 김정민 부장교사. “문정중학교 환경과학동아리반에서 주원천탐사를 통해 생태하천지도를 만들던 인연으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10년가까운 세월이 됐어요”라며 “환경을 사랑하는 대청호해설사 여러분과 만남이 계속되니 신뢰가 더 두터워집니다” 함박웃음꽃 핀 얼굴만 봐도 행복에너지가 충전되는 듯 하다.

신탄진용정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이 찾아가는 물환경교실에 참여했다. 저학년과 고학년용 맞춤교안으로 퀴즈, 교구놀이, 물사랑 다짐판 만들기 등 체험을 강화시켜 초등환경교육이 진행됐다. 미흡한 부분과 과잉부분에 대한 세세한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보완과정이 필요하다는 등 대청호해설사들의 평가회의가 계속됨으로써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지향하는 교육사업은 희망적이라 자신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5개년짜리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표명했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겠다는 전략하에 기존의 일회성 체험이 일상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대청호유역내에도 생태전환학교가 운영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대해본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주민들과 함께 맑은 회인천 만들기

올해는 작년보다 장마가 비교적 짧지만 살인적인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라서 다시금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중 한곳인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결성하여 올해까지 활동을 이어져 오는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올해는 더 심해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회인면에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작년에 도랑살리기 사업에 참여 했던 고석리, 송평1리는 사후관리를 하고 용촌2리 마을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인천거버넌스는 회인면 마을마다 모니터링단을 결성했다. 월 2회씩 마을에 있는 비점오염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바탕으로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여 금강지킴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축분은 사무처에서 비가림을 설치하고 있으며 하천변 소각 방지를 위해 안내판 또한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에는 부수2리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마을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마을답게 마을주민분들이 단합되어 모범적으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못했던 회인면 이장단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건희 상임이사는 회인면 이장님들과 만나 회인천수질개선거버넌스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으며 녹조의 원인이 되는 축분 관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7일 까지 용촌2리에서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마을 도랑 복원 작업을 하였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쌓인 퇴적토를 정리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친수지역을 조성하여 깔끔한 도랑으로 정비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마을 위해서 마을 기초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6월과 7월 여름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 23일 송평1리, 7월 9일 고석리 7월 10일 용촌2리 마을 주민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과 도랑을 깨끗이 정리 하였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회인면 주민분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

글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국장

금강 보호는 마을 도랑에서부터

증산리

하동리

올해는 옥천군 군서면 증산리와 하동리에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금강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마을도랑부터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간 축적되어온 노랑의 오염토 등을 제거하는 도랑정비사업과 수생식물 식재 사업, 주민 정화활동과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자료 제작, 홍보현판 설치 등 홍보사업 등이 있다.

증산리에서는 지난 6월 13일에 1차 도랑정리 작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1차 정화활동이 진행되었는데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도랑과 마을 내의 각종 쓰레기 더미를 수거 정리하였다. 당일 주민 환경교육도 실시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마을회관 앞에서 분리수거 및 소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 환경교육을 마치고는 마을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함께 협약식을 실시하였다.

7월 13일에는 2차 정화활동, 2차 도랑정리작업이 실시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30여명이 참여하여 열심히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수생식물도 식재하였다.

하동리에서는 지난 7월 1일, 1차 정화활동과 협약식이 실시되었다. 하동리는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날에는 2개의 자연마을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을 먼저 실시하고 구역을 나누어 열심히 청소를 하였다. 하동리의 도랑정리작업 등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빛난 활동이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더욱 알차게 주민들과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충북 물포럼 토론회’ 열려… 체계적인 물 관리 대안 제시

충청북도는 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충북 물포럼 주관으로 ‘충북 물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물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3개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송철민 연구위원의 ‘댐 주변 주민지원 사업 변천과정 및 현황’ △충북연구원 배명순 연구위원의 ‘댐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 및 발전방향’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 이건희 상임이사의 ‘거버넌스 참여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관리와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서 ‘댐 주변 지원 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충북대학교 김진수 교수를 좌장으로 △충남연구원 김영일 전임연구위원 △충북대학교 정세웅 교수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K-water 황상철 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댐 주변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발생 배경, 사업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도내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경제발전 전략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전항배 충북 물포럼 대표는 “지역 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과 물 문제 해결, 상수원 보호와 댐 주변 지역의 공동발전 방안 등 충북 물 자원 현안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물 사랑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물 관련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물포럼’은 충북 미래 물 비전과 물 관련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설립했다.

도내 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내외뉴스통신】2021. 7. 8 문병철 기자

대청호 유입 쓰레기 작년 20분의 1… 폭염 속 녹조 ‘급번성’

장마가 예년보다 짧아지면서 해마다 이맘때면 대청호에 만들어지던 거대한 쓰레기 섬을 올해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돌면서 회남수역(충북 보은)을 중심으로 녹조가 번지는 등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청호에 유입된 부유물은 1천600㎥ 가량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장마가 이달 19일께 끝날 것으로 예보되면서 대청댐지사는 쓰레기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이 기간 대청호 유역인 충북 옥천과 보은지역 강우량은 각 173㎜, 135.5㎜이다.

작년 장마 때인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47일간의 강우량(903㎜)의 15 19%에 불과하다.

비가 덜 내린 만큼 호수에 유입된 쓰레기양도 작년(3만3천800㎥)의 20분의 1 수준이다.

작년에는 장마와 태풍 ‘바비’·‘마이삭’이 겹치면서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지만, 올해에는 태풍 소식도 잠잠하다.

대청댐지사는 태풍이 발생하면 대청호에 쓰레기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 12일 이후 맹위를 떨치는 폭염은 수질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옥천의 수은주는 12일 33.5도를 가리킨 데 이어 13일 34.2도까지 치솟았다. 보은도 이틀 연속 32.7도를 찍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는 수온이 25 35도일 때 왕성하게 번식하는데, 회남수역에서는 벌써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 수역의 물 1㎖당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21일 434cells, 같은 달 28일 578cells, 이달 5일 640cells로 지속해 늘고 있다.

남조류가 2주 연속 1천cells/㎖를 넘을 경우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원인을 찾아봐야겠지만 회남수역은 상류의 물이 가장 먼저 본류 구간에 도달하는 곳이라서 녹조가 일찌감치 생기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는 이 수역의 1㎖당 남조류 세포 수가 13일부터 1단계(1천cells 이상 1만cells 미만)에 접어들 것으로 예보했다.

다행히 지난 5일 관측 때 문의수역(청주)과 추동수역(대전)에서는 남조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2021. 7. 14 심규석 기자

여긴 어디? 한국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코로나에 무더위에 한반도가 끙끙 앓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아주 잠시라도 드라이브를 떠나서 휴식을 취할 만한 곳이 없을까?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 지사는 조심스럽게 당일치기 여행지로 옥천군을 추천했다. 대전과 충남권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차로 2시간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대청호 인근에서 딱 두 곳이 포인트라고 찍어줬다. 마치 유럽 호반마을 같은 풍경과 동양의 수묵화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공존한다. 대청호 자체가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으니 꿩 먹고 알 먹는 여정이 될 것이다.

◆ 수생식물학습원

먼저 옥천군 수생식물학습원이다. 이곳은 입장과 동시에 허리를 잔뜩 숙여야 한다. 부러 불편하게 성인 남성이 들어가기 어렵게 문을 이중으로 설계한 이유가 있다. 주서택 원장은 “자연 앞에 겸손해지자는 의미”에서라고 설명했다.

이름이 학습원인만큼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5가구가 2003년부터 관경농업의 현장으로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수생식물을 재배, 번식시켜 보급하고 수생식물을 통한 ‘물 사랑’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모든 수생식물과 열대지방의 대표적인 수생식물을 재배한다. 백련과 홍련 등은 야생연못에서, 또한 지천에 피어나는 각종 야생화와 분재가 재배, 전시되고 있는 천상의 정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이 장소를 돋보이게 하고 발길을 끄는 요소는 더 있다. 유럽의 어느 호반마을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풍경과 검은색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다. 카페에 앉아 천천히 흐르는 대청호 물길을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음미할 수 있으니 요즘처럼 더울 때 딱 좋다.

또 한가지 놓치면 안 되는 공간이 있다. SNS에서 인기를 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다. 규모는 작지만, 교회당을 방문한 사람들이 베푼 사랑은 컸다. 원하는 사람만 기부를 받았는데, 2019년부터 2년간 모인 헌금 2억 7천만 원을 옥천군에 사는 루게릭병 투병환자와 장애인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길지 않은 둘레길을 걸으면 대청호와 검은색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로 덥힌 수목원은 연꽃이 반겨준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니 필히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2월은 휴관이다.

◆ 부소담악

다음은 부소담악이다. 옥천의 대표적인 풍경으로 꼽힌다. 조선 후기 고향이 옥천인 우암 송시열이 ‘작은 금강’이라 극찬했다. 부소담악은 물 위로 솟은 기암절벽인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병풍바위라는 뜻이다. 대청댐이 생겨 산 일부가 물에 잠기자 바위 병풍을 둘러놓은 것 같은 지금의 모습이 됐다. 길이가 무려 700m에 달한다. 2008년에는 국토해양부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하천 100곳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대청호오백리길 7구간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부소담악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능선에 있는 추소정이다. 정자에 올라 부소담악 쪽을 바라보면 마치 용이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저공비행 하는 형상이 펼쳐진다.

직접 부소담악 위를 걸어보는 것도 좋지만, 걷다보면 부소담악의 옆 모습이 궁금해진다. 이를 보려면 환산로를 따라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커피아뜰리에를 들러봄직 하다. 카페 옥상에 오르면 멀리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배에 타고 부소담악 맞은편 미르정원까지 이동해 근거리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1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가격은 1만 원이다.

지금 보는 풍경은 송시열이 예찬한 풍경과는 다르다. 물속에 상당부분 잠긴 절벽을 상상해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1980년 대청호가 생기면서 잠긴 풍경은 새로운 지형을 형성해 나름의 신비로움을 갖췄다. 윤승환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지사장은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오백리길과 부소담악, 그리고 수생식물학습원을 하루 코스 언택트 건강 힐링 여행지로 강력 추천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2021. 7. 15 권오균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옥천군

옥천생태복원 반딧불이 군무 되살아날까

옥천군은 한여름 밤 별빛 같은 군무를 선보이는 반딧불이 서식지조성에 나선다.

매년 5-6월 반딧불이축제가 열리던 대청호 안터지구가 환경부 주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옥천지역 서식지조성사업 대상지는 안내면 장계리, 옥천 수북리, 동이면 안터마을, 안남면 연주리로 이어지는 21㎞ 구간이다. 대청호를 끼고있는 주변이다.

개똥벌레로도 불리는 반딧불이는 5월 말에서 6월 초 짝짓기를 한 뒤 300-500개 알을 낳는다.

애벌레는 이듬해 4월까지 다슬기를 먹으며 수중생활을 하다가 번데기로 변태 한 뒤 5월 말에서 6월 초 어른벌레가 돼 빛을 내며 은하수가 펼쳐진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이런 깨끗한 물과 풀, 나무가 있고 이끼가 자라는 깨끗한 생태습지가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2년간 습지를 조성하고 반딧불이 유충을 키워 성과를 내려면 6억 사업비가 필요하다.

군은 사업비확보를 위해 조만간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특별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충북도 역시 반딧불이 복원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에 환경보전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환경조사용역을 거쳐 반딧불이 생태복원적합지 5곳을 선정해 습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지 선정과 반딧불이 복원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전문연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청호 수질보전과 환경보호, 마을 관광자원확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보호 현장학습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옥천군은 기대하고 있다.

서식지가 조성되더라도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군은 반딧불이 지킴이 지정, 주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계도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담당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습지조성, 유충방사 등 사업전반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전시가 8월말까지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구와 대덕구 관할의 대청호 주변 지역이다.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 단속이 어려운 경우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을 지원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20년도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이번 단속을 진행한다.

우선 환경·위생·건축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DB화를 통한 추적관리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한영 기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가동·정지 반복 원자로 '하나로' 폐로해야"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고장으로 또다시 멈춰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하나로 폐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5일 성명을 내고 "방사선 관련 영향은 없다지만, 너무 잦은 하나로의 정지·사고가 대전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 30년이 다하면 연장이나 정지를 논의할 수 있지만, 하나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설계 수명이 없어 폐로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이 나면 땜질식으로 고치고, 다시 가동 허가를 신청하고, 가동하다 다시 멈춰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26년 된 노후한 하나로의 폐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하나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된 열출력 30㎿급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이다.

1995년 첫 임계(원자로에서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핵분열 연쇄반응이 시작되는 현상)에 도달한 뒤 26년 동안 방사성 동위원소와 규소 반도체 등 산업·의료제품 생산, 중성자 빔을 이용한 기초연구·첨단 소재 개발 등에 활용돼 왔다.

통상 4주 운전 후 2주 정비를 원칙으로 연간 200일 운전을 이어왔지만, 2014년 7월 과부하로 수동 정지된 뒤 가동과 정지를 반복해오고 있다.

98주기 운전에 들어간 2018년 7월 운전 중 정지봉 이상으로 갑자기 멈춘 뒤 재가동과 정지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3년여 만에 100주기 가동을 마치고 101주기 운전에 들어갔으나, 지난 1일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내 수소 압력 이상으로 또다시 자동 정지됐다.

무주 4-H본부

무주군, 청년 4-H회 만남의 장

무주군 청년 4-H회 만남의 장이 지난 7월 15일 무주읍 국민체육센터와 설천면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4-H역사 및 이념을 교육하고 선·후배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년 신입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 실천 등을 실천하겠다는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을 낭독, 상호 의지를 북돋웠다.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해 ‘머리는 명석하게, 마음은 충성하며, 손은 위대하게 봉사하고 건강은 더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한다’는 4-H서약을 제창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리더십 강화를 위한 특별강의와 도전 골든 벨 참여를 통해 회원 간 화합의 계기를 만들고 4-H회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4-H 신입회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큰 힘이 된다”라며

“4-H회가 우리 농업·농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더 이롭게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 농산물 시장개방, 기술력과 자원의 한계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실이 녹록치 않기에 청년 회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이 시간이 농업·농촌을 향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리더로서 결속을 다지기에 충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智), 덕(德), 노(勞), 체’를 상징으로 하는 4-H회(무주군4-H본부, 무주군 4-H연합회)는 19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으로 과제포 운영(공동경작 등),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와 무주농업 발전, 농업인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